

제120회

2월 12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20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2월 12일 발명장 ...○
- ... 러관 연구실에서 개 ...○
- ... 최 되었다. 매월 들 ...○
- ... 째 토요일 오후 1시 ...○
- ... 30분에 개최되는 발 ...○
- ... 명교실은 이 달에도 ...○
- ... 1백 여명이 참석하여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 ...○
- ... 서는 한국실업 대표 ...○



빨래줄 지지대 발명가

한국실업 최성원 사장

몇 차례의 해외 전시회와 국내 전시회를 통하여 크고 작은 상들을 수상하며, 역시 발명이란 그다지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늘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며 사는 것 보단 한번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사장이 발명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무모하리만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컸다.

피는 속일수가 없었음인지 그의 아버지도 한가지 볼두

하면 끝까지 결과를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집념의 사나이였다.

빨래줄 지지대. 이름 부터가 참 토속적이고 평범한 냄새를 풍긴다. 그 옛날 우리네 조상님들은 빨래를 너는 빨래줄을 달려고 바람도 잘 부는 알맞은 장소에 장대를 세워 줄을 높이 달아 사용하던 습기로움이 있었다. 최사장도 그런 습기로움을 본단아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빨래를 널 수 있을까를 생각 하게 되었다. 사실, 여름이면 몰라도 추운 겨울에는 빨래를 널려면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그렇다고 방 가운데 줄을 매달고 빨래를 낸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최사장은 일단 벽면을 이

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빨래줄도 한줄 보다는 작은 공간에 여러줄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 하였다. 그래서 먼저 벽면에 받침대를 고정 시키고 지지대를 조립하여 양끝에 설치를 하였다.

줄도 한줄이 아니라 여러줄을 만들기 위해 지지대도 약 30cm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그 사이의 간격을 8cm 정도로 하여 4개의 줄을 매달았다. 최사장이 착상했던 처음대로 성공 이었다.

몇 일을 사용해 보니 단점이 발견 되었다. 나일론 끈을 사용했던 4개의 줄이 시간이 흐를수록 풀어지고 늘어나서 가운데가 항상 처지다 보니 빨래가 중앙으로 몰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인 최성원 사장의 성 ...○
- ... 공사례 발표에 이어 ...○
- ... 김영길 변리사의 「산 ...○
- ... 업재산권제도」에 대 ...○
- ... 한 강의와 본회 김관 ...○
- ... 형 상근이사의 「발 ...○
- ... 명의 발상기법과 사 ...○
- ... 업」에 대한 강의와 ...○
- ... 토론이 있었다. 발명 ...○
- ... 가의 성공사례를 간 ...○
- ... 추려 소개한다. ...○
- ... <이두성 記> ...○



멈출 최사장이 아니었다.

술을 한잔 마실 돈으로 연구 개발비를 충당할 만큼의 열심으로 연구에 몰두 하였다.

많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벽면에 고정 시켰던 받침대도 공간을 줄이기 위해 접을 수 있도록 하고 지지대의 금형도 새로 제작 하였다.

옛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최사장 자신이 개발한 물건이 그래도 실용신안으로 등록까지 받았는데 그냥 팽개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실용적으로 사용 하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에 빨래줄도 철파이프로 바꾸어 다시 작업을 시작 하였다. 받침대도 벽면에 고정식 대신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만들고 보니 그야말로 훌륭한 발명품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이동식 선반으로의 사용도 가능 하였다.

최사장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한 발명품으로 '93년 독일국제 발명품 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생활용품 부문에서 수상을 한것이라 가슴이 더욱 뿌듯 하였다.

“몇 차례의 해외 전시회와 국내 전시회를 통하여 크고 작은 상들을 수상하며, 역시 발명이란 그다지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사장은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 온 세계인이 인정하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니 그동안 고생 하였던 것이 모두 가시는듯 하다고 말하였다.

최사장이 모 유통공사에 다니면서 발명을 할땐 다른 발명가들도 그랬듯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발명에 빠져 한우물을 파고자 노력했던 그도 결국엔 성공한 발명인으로 기록이 되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을 자기발로 뛰어나니며 발명을 한 최사장은 아끼는 발명인 후배들에게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좌절하지 마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안

제 122회 발명 교실

내

일시 : 1994년 4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발명장려관(KOEX별관 2층) <교재무료 제공>